『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5
pp.077-092 ISSN : 1229-9618

중국 유입 한자어의 분류와 독음 표기*

이지영**

【목 차】

1. 서론
2. 한자어의 분류와 독음 표기
   1) 한자어의 분류
   2) 한자어 유입 시기와 독음
3. 한자어 독음과 심리적 거리감
4. 한자어 독음표기에 대한 쟁점
5. 중국 원지음인 경우 표기법 문제
6. 결론

【초록】

한국에 유입된 한자어는 국어화한 보통명사, 고유명사, 새로운 개념어, 그 외 개별 음역 차용어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국어화한 보통명사는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개별 음역 차용어는 단어마다 특유의 독음법이 정착하였다. 반면 고유명사와 새로운 개념어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을 기반으로 한 표기라는 두 가지 독음 방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한자는 다른 외국어와 달리 국어의 영역에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 외국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자어의 독음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어를 분류하고 그 독음 표기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키워드】 한자어, 중국어, 독음, 한자음, 언어정책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또한 이 논문은 2018년 12월 8일 한양대학교(안산)에서 개최된 “한국어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연합학술회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소프트파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jyunglee@ks.ac.kr)

1. 서론

한자가 유입된 이래, 한자와 함께 들어온 한자어[1]는 한국의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자어는 한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삼국시대 이후 활발히 유입되었다. 특히 현재 국어화하여 이미 '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들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외래어'에 가까웠으나 고려시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국어화하여 고유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고유어를 대체하였다.[2]

한자와 한자어가 한국의 언어생활에 깊숙이 자리함에 따라 한자를 읽어내고 실제 국어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노력 역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체계가 국어와 다른 문자와 어휘를 사용하고 읽기 위하여 音借, 訓借, 吏讀, 鄕札 등 여러 방법이 고안되었다. 한국 한자음 역시 글자 대부분이 하나의 음[3]을 갖도록 정비되었다. 현대 이전에 유입된 한자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아무런 저항 없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힌다. 글자나 단어에 따라 다른 한자음으로 읽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4] 이는 본래 한자의 여러 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모두 한국 한자음 범주에 있다. 즉, 한자와 한자음은 기본적으로 1:1 대응을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한자어들은 우리에게 외래어라기보다는 국어로 훨씬 익숙하다. 이상혁(2002:103)에 따르면 이 한자어들은 국어 어휘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는 이러한 소위 "대륙계 어휘군", 즉 역사적으로 차용된 외래어군이 국어로 거의 굳어진 귀화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외래어라는 사실을 언중들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에 한자를 병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반면 현대에 들어와 유입되고 있는 한자어, 특히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격렬하다. 비록 기존 한국 한자음 역시 중국에서 유래했으나 한국 한자음과 현재 중국 원지음[5]의 형성 시기 사이에는 매우 큰 시간차가 있다. 그 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어음 변화가 일어났고, 현재는 두 개의 한자음 형태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하여, 현재 새로 유입되는 한자어를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한자음 중 어느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국어 내 새로운 단어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본고는 현재 한국에 유입된 한자어를 분류하고, 각 분류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국어에서 어

---

1) 본고에서 '한자어'라고 지칭하는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의미 그대로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한자어'라고 지칭되는 이미 국어화한 한자어뿐만 아니라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고유명사나 신조어를 모두 포함한다.

2) 김종훈, 『한국고유한자연구』, 보고사, 2014, pp.1-2 참조.

3) 예를 들어, '樂'이 '악', '락', '요'의 음을 가지고, '邪'가 '사', '야' 등의 음을 갖는 것 등이 있다.

4) 예를 들어 '茶'의 경우 '茶禮'는 '차례'로, '茶道'는 '다도'로 읽어 단어에 따라 다른 음으로 읽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便' 역시 '便利'는 '편리'로 읽지만, '用便'은 '용변'으로 읽는다. 이처럼 단어에 사용된 의미에 따라, 혹은 습관적으로 다르게 읽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5) 본고에서 '중국 원지음'은 현대 중국어음과 그에 기반을 둔 한글 표기를 포함한다.

떠한 형태로 전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전사 형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에 유입된 한자어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된 한자어들이 어떠한 독음으로 읽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것이 국어 내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한자어가 국어에서 가지는 의미와 위치를 '거리' 개념[6]을 응용하여 분석한다.

2. 한자어의 분류와 독음 표기

고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은 언어 구조나 체계에 큰 차이가 있다. 음운 체계는 물론, 사용하는 단어나 어순 등 언어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라는 중국 문자를 한국어에서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보완재나 수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한자어이다. 한자어는 어휘 내에서 어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한국어를 한자화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한자어에 한국어식 '토'만 붙이기만 해도 한국어를 한자로 서술하는데 용이해진다. 이처럼 한자어는 한국어를 한자로 전사하는데 가장 유용한 보완책이었으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었다.

현대 이전에 한국으로 유입된 한자어는 대부분 중국 중고음에[7] 기반을 두고 형성된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유입되는 한자어들은 중국 원지음에 기반을 두어 음역된다. 일부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중국 관련 어휘나 중국 음식 이름을 제외하고 보통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어는 유입되는 시기와 단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중국어에 유입된 한자어를 분류하고 각각 그 특성과 독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한자어의 분류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어[8]가 외래어로 정착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6) 본 논문의 초고가 발표된 학술대회에서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전국조 HK연구교수가 한자어에 대한 인식에 '거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본 논문을 서술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지면을 빌려 전국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7) 한국 한자음이 정확히 중국 중고 어느 시기의 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의 가장 큰 지층을 이루고 있는 음이 중고 시기의 음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8)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일부 한자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유래한 한자어도 다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답(田畓)', '덕분(德分)' 등의 한자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독일(獨逸)', '기라성(綺羅星)', '불란서(佛蘭西)' 등과 같은 단어들은 일본에서 유래한 한자어이다. 이들은 모두 한

(1) 국어화한 한자어
(2) 고유명사
(3) 새로운 개념어
(4) 개별 음역 차용어

첫째, 국어화한 한자어[9]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자어'라고 부르는 단어들이다. 대부분 현대 이전에 유입되었으며 이미 외래어라기보다는 국어에 가깝다. 이러한 한자어는 보통명사로 정착하였으며, '감정(感情)', '생활(生活)' 등과 같은 단어는 물론, '원(願)하다', '섬세(纖細)하다' 등 접미사가 붙어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말도 모두 포함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모두 원지음 개념이 도입된 현대 이전에 유입되었고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되고 사용된다.

둘째, 고유명사는 중국의 인명, 지명 등으로, 유입된 시기나 경로에 따라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을 선택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고유명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원지음을 바탕으로 읽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쓰이지 않는 역사적 지명이나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에 대해서는 한국 한자음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즉, '孔子'는 '공자'도 허용하지만 '習近平'은 '습근평'이 아닌 '시진핑'으로만 읽는다. 또한 '長安'은 현재 쓰이지 않으므로 '장안'으로 읽지만, 현대 지명이기도 한 '北京'은 '베이징'으로 읽는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이 혼용되어 있다.

셋째, 새로운 개념어는 최근 중국에서 유입된 단어들이다. 이 중 일부는 기존의 한자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지만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꽌시(關係)'[10]의 경우, 기존의 국어에서 사용되던 '관계(關係)'가 아닌 '중국 특유의 인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존의 한자어와 다른, 특히 중국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더해지거나 중국에서 현대에 형성되어 유입된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중국적 의미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국 원지음으로 표기되고 발음된다. 예를 들어, '왕홍(網紅)'은 중국의 SNS 스타를, '유커(遊客)'는 중국 여행객을 의미하며 각각 '망홍', '유객'으로 읽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 원지음으로 읽는 것은 원래 있던 단어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거나 중국적 색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개별 음역 차용어는 보통 음식 이름이나 중국 관련 어휘로 중국 색채가 강한 단어들이다. 짜장면(炸醬面)이나 깐풍기(干烹鷄), 치파오(旗袍) 등이 있다. 이들은 유입 당시부터 한자가 아닌 음역 차용된 형태로 유입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단어들이 어떠한 한자를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 점이 앞서 분류한 새로운 개념어와 다른 점이다. 개별 음역 차용어는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서 한자가 중간 매개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국 한자음으로 읽으며 이미 국어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유래 한자어의 독음 표기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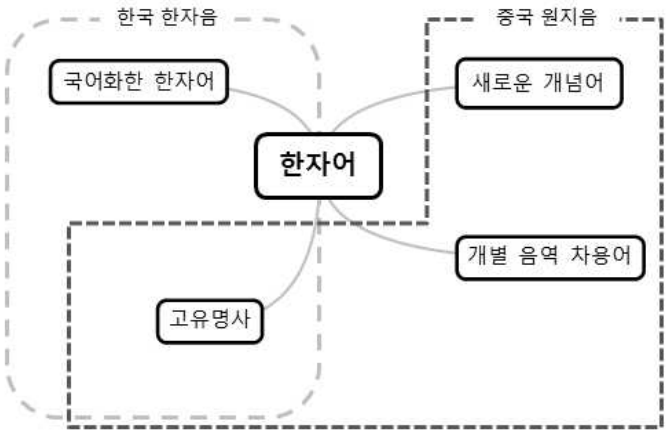
9) 여기서 '보통명사'는 '고유명사'에 대비되는 넓은 의미의 보통명사로, 구상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10) '關係'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으로 원지음 적용방식으로 읽으면 '관시'가 되지만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는 '꽌시'를 사용한다.(예를 들면 서울경제 2018.10.28. "대법, "중국 공무원에 2억 '꽌시' 로비는 무죄", 한국일보 2018.08.19. "꽌시 뇌물 오가는 中 대입 축하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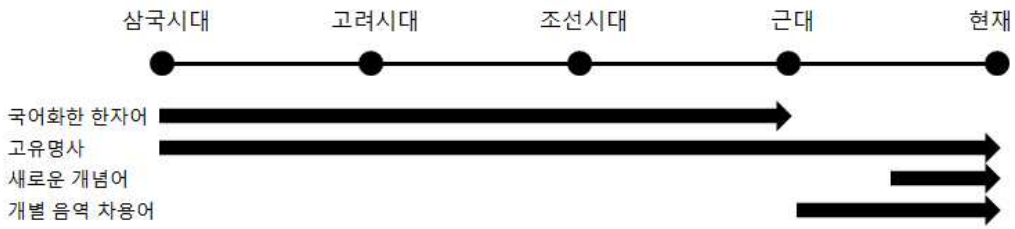
개별 음역 차용어는 독음이 외래어표기법에 벗어나는 경우나 유입된 지역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한자가 매개되지 않으므로 외래어표기법 등을 통해 독음 표기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 한자어 유입 시기와 독음

이상에서 한국에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국어화한 한자어, 고유명사, 새로운 개념어, 개별 음역 차용어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한자어들은 유형마다 독음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국어화한 한자어는 한국 한자음으로, 새로운 개념어와 개별 음역 차용어는 중국 원지음으로, 고유명사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에 걸쳐 있다. 이처럼 독음이 각 유형 내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입 시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을 유입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화한 한자어는 한자가 유입된 삼국시대 이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유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한자어는 삼국시대 이전엔 '외래어'에 가까웠으나 고려시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국어화하여 고유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고유어를 대체하였다. 현재는 국어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완전히 동화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을 번역한 다량의 신조어가 유입된 이후에는 한자어가 거의 유입되지 않았다. 근대 이후에는 새로운 개념을 번역해 온 한자어의 역할을 영어 등 서양 언어가 대체하였다. 한자는 근대 이전의 국어에서 모두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이들은 모두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다.

고유명사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고유명사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서 모두 원지음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은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그리고 지명은 현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 한자음을 허용한다. 신해혁명 이전 인물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을 허용하며, 지명의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라면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다. 이는 고유명사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유입되어 실제 언어생활에서 기존에 유입된 고유명사가 그 이전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의 국어 생활에서 현대 인명과 지명에도 그동안 한국 한자음으로 읽던 습관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명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이 흔히 병용된다. 예를 들어 '北京'이나 '上海'는 '베이징', '상하이' 외에 '북경', '상해'로 읽는 경우도 많다. 인명의 경우, 현대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외래어표기법이 정착되기 이전에 유입된 인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대중에게 훨씬 친숙하다. 예를 들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周潤發', '周星馳'를 '저우룬파'나 '저우싱츠'보다는 '주윤발', '주성치'로 읽는다.

새로운 개념어와 개별 음역 차용어는 대부분 근대에서 현대 사이에 유입되었다. 모두 한국 한자음보다는 중국 원지음으로 읽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유입되었다기보다는 단어가 필요에 따라 유입되고 사용되었다. 이들은 보통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 단어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중국 색채를 살리기 위해 중국 원지음을 바탕으로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어음 변화로 인해 한국 한자음이 이제는 중국 색채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도 중국 원지음으로 읽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한자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한국 한자음만이 음역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이 실제 원지음과 음성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자에 따라 새로운 개념어와 개별 음역 차용어를 외래어표기법에 벗어나게 읽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다시피 '關係'에서 비롯된 '중국적 유착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관시'가 아니라 '꽌시'로 읽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최근에 언론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한자어들은 여전히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11]

11) 예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을 일컫는 '遊客'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기인 '유커' 외에 '요우커'도 언론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한자어 독음과 심리적 거리감

이러한 한자어 유형에 따른 독음의 차이는 언어 사용자의 심리적 거리감과 관련 있다. 본고에서 분류한 한자어 유형 중 국어화한 한자어는 외래어라는 인식 없이 한국어와 거의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순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낯선 외래어와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12] 있다. 즉, 여기에서 순화된 말은 '우리말'에 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국민의 공모를 통해 외래어를 순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398개의 외래어가 순화되었다. 이 외래어들은 대부분 국어화한 한자어로 순화되었다.

순화된 전체 외래어 중 완전히 한자로 구성된 단어로 순화된 것은 248건(62.3%)이고, 한자가 부분적으로 사용된 단어[13]는 97건(24.3%)이다. 398개의 외래어 중 345개의 단어가 한자가 포함된 단어로 순화된 것이다. 이는 전체에서 86.7%에 해당한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다듬기는 공모를 통해 순화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국어화한 한자어로 분류된 단어들은 국민들의 인식에서 완전히 국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순화된 일부 단어는 순화 과정에서 영어 유래 외래어도 일부 받아들였다.[14] 영어 유래 외래어 중 일부 단어들은 국어화한 한자어만큼 오랜 정착 과정을 거쳤으며, 국어에서 대체 불가한 단어들은 국어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에서 이러한 영어 유래 외래어들은 국어화한 한자어보다 외래어로서의 인식이 더욱 강하다.

예를 들어 '플래그십 마케팅(flagship marketing)'은 '대표 상품 마케팅'으로 순화하여 '마케팅'이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반면,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은 '구설수 홍보', '데카르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은 '예술 감각 상품'으로 순화하였다. 즉, 순화의 단계가 한자어인 '홍보', '상품'이 '마케팅'보다 더 하위에 있다. 순화는 국어 사용자가 해당 단어를 국어로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다. 그러므로 국어화한 한자어는 영어 유래 외래어보다 더 국어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처럼 심리적으로 국어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즉 어떠한 단어를 국어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거리'를 느끼는 것은 사실상 어음(語音)에서 기인한다.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이 음운 체계상 얼마나 국어에 부합하는지, 또한 음절의 조합이 국어 내에서 용인 가능한지는 외

---

12) 국립국어원 우리말다듬기(http://www.malteo.net/) 인용.

13) 예를 들어, 열린 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maker space), 커피 전문가(바리스타: barista), 거리 공연(버스킹: busking) 등이 있다. 여기서 '제작실(製作室)', '전문가(專門家)', '공연(公演)'은 한자어지만 '열린', '거리'는 우리말이고, '커피'는 영어 유래 외래어이다. 이처럼 순화된 단어 일부가 한자어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4) 예를 들면, 크림(휘핑: whipping - 거품 크림), 로봇(휴머노이드: humanoid - 인간형 로봇), 해커(화이트 해커: white hacker - 착한 해커), 서비스(콜백 서비스: call back service - 회신 서비스 등), 빌라(풀빌라: pool villa - 수영장 빌라), 프로그램(파일럿 프로그램: pilot program - 맛보기 프로그램), 컵(텀블러: tumbler - 통컵), 코치(코칭스태프: coaching staff - 코치진), 웹/인터넷(웹서핑: web surfing - 웹 검색/인터넷 검색), 소스(오픈 소스: open source - 공개 소스), 오토바이(에이티브이: ATV - 사륜 오토바이) 등이 있다.

래어가 국어에 받아들여 지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어로서의 '낯섦' 정도는 국어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한자어 유형을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 기준 표기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즉, 국어화한 한자어는 한국 한자음을 따라서 한국어 음운 체계에 완전히 부합하지만, 새로운 개념어와 개별 음역 차용어는 중국 원지음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고유명사는 시대에 따라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독음 차이는 한국인이 느끼는 한자어에 대한 거리감과 낯섦과 정확히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화한 한자어는 완전히 국어로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개념어와 개별 음역 차용어는 외래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고유명사의 경우는 독음에 따라 외래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북경(北京), 상해(上海), 공자(孔子), 장국영(張國榮) 등과 같이 한국 한자음으로 된 단어보다 베이징, 상하이, 콩쯔, 장궈롱이 외래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하다. '중국인 관광객'은 국어로 사용하기에 아무런 거리감이 없으면서, 우리말 다듬기에서 '유커' 등의 단어가 순화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그림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즉, 분류된 한자어는 각각 독음 표기가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며, 그 독음이 한국 한자음인지, 중국 원지음에 따른 표기인지에 따라 국어로서의 심리적 거리감에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심리적 거리감은 국어 사용자가 이 단어를 외래어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한자어가 국어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는지는 한자어를 국어 안에서 인지하는지 혹은 외래어로서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바로 현재 쟁점화되는 한자어, 특히 고유명사의 독음 표기의 주요 쟁점이다. 한자어를 자아의 방식(한국 한자음)으로 읽느냐, 아니면 타자의 방식(중국 원지음)으로 읽느냐는 단순히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자어를 어떻게 읽느냐를 통해 한자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4. 한자어 독음 표기에 대한 쟁점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한자어의 독음 표기는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새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단어를 국어에서 사용하기 위해 표기할 때, 특히 앞선 분류의 '고유명사'나 '새로운 개념어'의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한자를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원지음을 한국어 음운 체계에 맞게 읽는 방법이다.

'국어화한 보통명사'나 '개별 음역 차용어'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굳어지고 규범화한[15] 단어이므로 새로운 선택지가 개입하기 매우 어렵다. '고유명사' 등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중국 원지음을 기준으로 하여 쓰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새로운 개념어'는 기본적으로 국어에 맞게 번역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어 표현력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지음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라는 점이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고유명사가 이러한 표기법 정립 이전에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왔다. 새로 유입되는 단어들은 새로이 중국 원지음을 기준으로 국어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유입된 단어들은 이미 한국 한자음으로 통용되고 있다. '공자(孔子)'나 '이백(李白)'처럼 고대 인물들은 물론 '성룡(成龍)'이나 '장만옥(張曼玉)'은 현대 인물임에도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널리 통용된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 표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영화의 출연자들이 서로 다른 표기법으로 표기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게이샤의 추억'의 '장쯔이'와 '양자경', '영웅'의 '양조위'와 '장쯔이', '적벽대전'의 '이연걸'과 '린즈링'은 모두 같은 영화에 출연하여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나 이름은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중 '장쯔이', '린즈링'은 중국 원지음으로 표기하고, '양자

15) 이에 속하는 단어 대부분은『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경', '양조위', '이연걸'은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한다. 이는 대중들에게 처음 인식된 이름의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에 유입된 단어들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유입될 단어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학계에서 역시 중국의 고유명사 등을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 중 어떤 것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다양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16] 많은 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들은 크게 중국 원지음으로 표기하길 주장하는 측과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길 주장하는 측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엄익상(2008, 2009), 조관희(2009) 등은 중국 원지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태하(2007), 송기중(2007) 등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논문들에서 나타난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을 주장하는 양측의 쟁점을 분류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한자음 주장	중국 원지음 주장
인식의 편리함	- 국내에서 중국어를 모르는 일반인에게 인식시키기 유리 - 국어 내에서 거부감 감소	- 일반인은 새로운 단어로 인식하지 유래에 대해 큰 관심 없음 - 외래어로서 인식되어 국어와의 혼란 감소 - 국제적으로 해당 고유명사에 대한 소통이 용이함
사용의 편리함	-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쉽게 읽고 한국어로 사용 가능	- 표기법에 맞춰 읽으면 됨
한자 문명권에서의 지위	- 한자 문명권 내에 있는 한국은 고	- 고유명사는 한자 문명권과 관계없

16) '국어정책 토론회: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2011.06.23.)', '한자 인명·지명 고유명사 표기, 이대로 둘 것인가(2007.10.22.)' 등이 있다.

	유의 한자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자는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야 함	음
중국 내 한국 고유명사 독음 문제	- 중국에서는 한국 고유명사를 중국 원지음으로 읽음	- 중국이 음절 유형이 훨씬 적어서 생기는 문제
다른 나라에서의 중국 고유명사 독음 문제	-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고유명사는 자기 방식으로 읽음	- 비슷한 사례가 타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음
관계에서의 주체성	- 한국에선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야 주체적	- 중국을 타자로 인식함으로써 존중과 주체성 확보
기존에 국어화한 단어와의 호환 문제	- 기존에 국어화한 단어도 중국 원지음으로 바꾸면 큰 혼란	- 이미 국어화한 단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중국 고유명사는 타자이므로 모두 바꿔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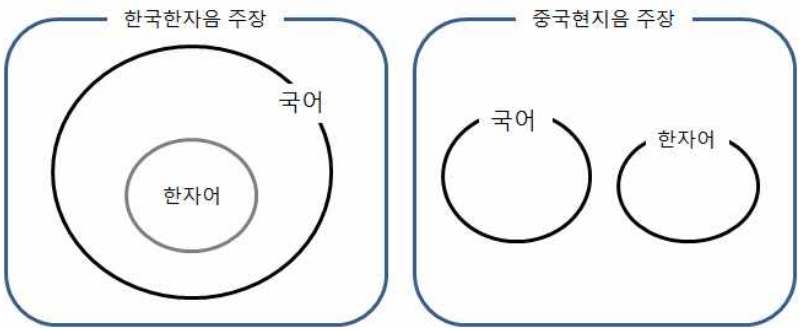
이처럼 각기 주장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앞서 살펴본 자아(국어)와 타자(중국어)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한자어를 자아의 방식대로 읽는지(한국 한자음), 아니면 타자의 방식대로 읽는지(중국 원지음 기반 표기)는 '중국'이라는 타국에서 들어온 단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의 심리적 거리감 역시 반영한다.

한자어를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 기반 표기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편리함과 주체성이다. 위의 쟁점에서 편리함은 인식과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기존에 국어화한 단어와의 호환 문제가 해당한다. 또한, 주체성은 한자 문명권에서의 지위와 상호주의적 관점, 관계에서의 주체성 등이 쟁점이 된다. 즉, 단어를 국어 내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언어 대 언어로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첫째, 편리함은 국어 내에서 한자어를 사용하는 데 편리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 한자음 사용을 주장하는 측은 국어 내에서 국어 사용자의 인식과 이용에 편리한지를 중요시한다. 특히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쓰고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중국 원지음 사용을 주장하는 측은 중국어와의 대응과 외래어로서의 인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할 때의 편리함을 중요시한다. 이들은 한자어를 '외래어', 즉 중국에서 유입된 단어로 인지하며 이를 국어와 구분 짓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를 한자보다는 음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외래어로 사용하기 편리함을 주장한다.

둘째, 주체성은 언어 대 언어로서 외래어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주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양측의 견해는 어떻게 한자어를 타자화하는 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 한자음 사용을 주장하는 측은 한자어를 한국어 내부에 편입시켜 주체성을 확보한다. 즉, 국어에 외래어인 한자어를 동화시킨다. 반면 중국 원지음에 의한 표기를 주장하는 측은 한자어를 타자로 인식하여 주체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방법은 거리감을 두고 서로가 '타자와 마주보기'를 통해 서로를 인지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한국어 내부에 들어올 수도, 혹은 외래어로서 타자가 될 수도 있는 한자어의 이중성에 근거한다. 오랜 세월 동안 한자와 한자어는 국어인 동시에 외래어였다. 한자는 다른 외국어와 달리 한국 내에서 폭넓게 사용했던 문자라는 점에서 국어임과 동시에 외국어이다. 이러한 한자의 특성상 한자어는 현대 이전에 타자였던 적이 없었다. 늘 국어 내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언어생활에서 국어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원지음을 채용하면서 한자어가 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러한 자아와 타자 간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앞으로 이 논쟁을 결론짓는데 쟁점이 될 것이다.

5. 중국 원지음인 경우 표기법 문제

한국 내에서 한국 한자음은 일반적으로 이미 독음이 안정되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국 원지음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다. 한어 병음 표기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한어 병음 표기를 영어식으로 잘못 읽어 생기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영화 마션에서 '太陽神'을 '타이양셴'[17]으로 읽고, '秋菊打官司'를 '귀주(Qiu-ju) 이야기'로 번역하고, 대만 증권사인 '元大'를 '유안타'로 표기한 것과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이 자의적으로 음역한 경우에도 다양한 표기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어떠한 기준 없이 개인이 들리는 대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화자에 따라 '五道口'는 '우다커우', '우다오커우', '우다코우', '우다코', '우따오커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음역이 정확하지 않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어 병음 표기에 따라 중국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표기법들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표기법으로 최영애-김용옥 중국어 표기법(이하 C-K 시스템),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엄익상식 중국어 표기법(이하 엄익상식 표기법) 등이 있다. 이 표기는 기본적으로 중국 표준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방언은 제외로 한다.[18]

---

17) '타이양선'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최영애-김용옥 중국어 표기법, 엄익상식 중국어 표기법 등 기준)

이 표기법들은 모두 현대 유입된 한자음, 즉 중국 외래어를 중국 원지음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즉, 국어의 입장에서 중국 외래어와 거리감을 설정하고 타자화하는 것은 모두 같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거리'를 얼마나 설정하고 있느냐는 표기법마다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국어와 중국어의 음소가 1:1 대응하지 않는다. 또한, 표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표기를 보이기도 하고[19] 국어 순화의 일종으로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화가 지나쳐 중국 원지음과 차이가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언론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표기법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거나 자체 기준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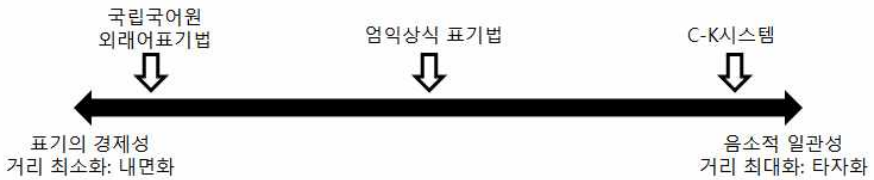
반면, C-K 시스템은 중국어의 모든 음운을 중복되지 않게 표기했다. 이로써 중국어 원음으로의 회귀를 가능하게 하며, 음소적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 중국어 원지음과 국어의 대응에 가장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엄익상식 표기법은 C-K 시스템에서 음소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한 음절이 한국어의 세 음절까지 대응되는 점을 보완하였다. 일부 중복을 허용하고 2음절 이상 대응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표기의 경제성을 강화하였다. 즉,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과 C-K 시스템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음소적 일관성과 표기의 경제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세 가지 표기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음소적 일관성: C-K 시스템 > 엄익상식 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표기의 경제성: 국립국어원 > 엄익상식 표기법 > C-K 시스템

이러한 차이는 국어의 입장에서 한자어를 얼마나 타자화하느냐, 즉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음소적 일관성의 극대화는 국어의 입장에서 중국어 단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체성을 인정하며 타자화한 산물이다. 반면 표기의 경제성은 국어의 입장에서 중국어 단어를 국어 내에서 사용이 쉽도록 임의로 변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면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8) 이처럼 표기법상 고유명사 역시 표준음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방언 지역, 특히 홍콩 출신 인물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한다. '成龍'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신을 표준음인 '청룽'이 아닌 한국 한자음 표기인 '성룡'이나 영문 이름인 '재키 챈'으로 불러 달라고 하기도 했다.

19) 예를 들어, 파찰음 뒤에 /-j-/를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표기법 전반의 원칙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현재 한국에 유입된 한자어가 어떠한 형태로 발음되고 독음이 표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에 유입된 한자어는 국어화한 한자어, 고유명사(인명, 지명 등), 새로운 개념어, 그 외 개별 음역 차용어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국어화한 한자어는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고 있으며, 개별 음역 차용어는 특유의 독음법이 관습상 대부분 정착하였다. 반면 고유명사와 새로운 개념어는 여전히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의 두 가지 독음 방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자가 다른 외국어와 달리 한국 내에서 국어의 영역에 있다가 현대에 와서 외국어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자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한자어를 국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외래어로 볼 것인가에 있다. 한자는 다른 외국어와 달리 한국 내에서 사용해 온 문자라는 점에서 국어이자 외국어였다. 이러한 한자의 특성상 한자어는 늘 국어와 같이 사용되어 왔고, 언어생활에서 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원지음을 채용하면서 한자어가 타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구본관(2010)은 전문인과 일반인[20]을 나누어 외래어 표기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중국 인명에 대해 일반인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을 68.2%로 선호한 반면, 전문인은 73.8%가 중국 원지음으로 읽는 것을 선호했다.[21] 이 설문조사는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먼저 혹은 자주 노출된 단어를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예로 든 영화 포스터에서 '장쯔이'와 '이연걸'이 서로 다른 표기법으로 쓰이는 것 역시 어떤 표기로 노출되고 인식되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자어의 독음은 국어 사용자에게 한자어를 얼마나 국어로 인지할 수 있는지 큰 영향을 미친다. 한자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느냐 중국 원지음에 따른 표기로 읽느냐는 한국인이 느끼는 한자어에 대한 거리감과 낯섦에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을 통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새로운 한자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 원지음 중 어느 것으로 읽도록 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표기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 유입될 단어의 정체성은 물론, 앞으로 국어 생활을 지속하게 될 후속 세대에게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어에서 한자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

20) 구본관(2010)은 일반인(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525명)과 전문인(아나운서, 신문기자, 국어교사, 출판사 편집 관련 종사자 등 103명)을 구분해서 설문 진행하였다.

21) 개별항목에서는 '四川'에 대해 중국 원지음 표기인 '쓰촨'을 전문인이 68.9% 선호한 반면, 일반인은 68.8%가 '사천'을 선호했다. '蔣介石'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59.8%가 한국 한자음 표기인 '장개석'을 선호한 반면, 전문인은 71.8%가 '장제스'를 선호했다.

【참고문헌】

강창석, 「漢字語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국어학』, 제45집, 국어학회, 2005.

고석주, 「중국어 고유명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한국식 한자음이 곧 말은 아니다」, 『한글』, 제293호, 한글학회, 2011.

구본관, 「외래어 표기규범 영향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2010.

국립국어원, 「'호금도'인가 '후진타오'인가 — 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제1회)』, 서울 목동 방송회관, 2011.06.23

김종훈, 『한국고유한자연구』, 보고사, 2014.

송기중, 「한자 인명·지명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해야」, 『한글+漢字문화』, 제100집,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7.

양세욱, 「'댜오위타이'와 '낚시터국빈관' 사이 — 중국어 고유명사 한글 표기의 현황과 쟁점」, 『중국어문학논집』, 제57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엄익상, 「중국어 한글 표기법 재수정안」, 『중어중문학』, 제3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엄익상,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반성 — 원칙과 세칙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18권 제4호, 국립국어원, 2008.

엄익상,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제56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이상혁, 「외래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이지영, 「한자어와 중국어 독음 표기」, 한국어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연합학술회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소프트파워,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116호, 2018.12.08.

조관희, 「중국어 한글표기법 논의를 바라보는 한 시각—왜 '원음주의'인가」, 『중국어문학논집』, 제58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진태하, 「한자 원음주의 표기를 반대함」, 『한글+漢字문화』, 제100집,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7.

국립국어원 우리말다듬기 http://www.malteo.net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漢字詞, 漢語, 讀音, 漢字音, 語言定策
	영문	Sino-Korean words, Chinese, Sino-xenic pronunciation, Sino-Korean pronunciation, Linguistic policy

A View on the Classification of Sino-Korean Words and their Phonetic Transcription

Lee, Ji-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Sino-Korean words and to analyze how those phonetic transcriptions have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policy. Sino-Korean words are grouped in accordance with their linguistic features as Koreanized common nouns, Chinese proper nouns, new conceptual words in the Chinese way, and idiomatic words by transliteration. Among them, Koreanized common nouns are pronounced in Sino-Korean sounds (namely in Korean), and proper nouns and new conceptual words are pronounced according to proper Chinese orthography. The reason why this discrepancy occurs is by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 Korean people used Chinese characters as written forms before the invention of Hangul, so every Chinese character has come to have its own pronunciation in Korean. But these days, Koreans do not usually use Chinese Characters, and new Sino-Korean words are considered as foreign words. Moreover, as Chinese pronunciation totally changed over time, Sino-Korean sounds and Chinese have becom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the phonetic transcriptions of Sino-Korean words by paying careful attention to distances among them. This should be an important criterion for the phonetic transcriptions of Sino-Korean word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지영 / 李智瑛 / Lee, Ji-Young		
	소 속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Em@il	jyunglee@ks.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2월 20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